

사의적 직관력 붓으로 표현... 남종화 작업은 수행과도 닮아

원학 스님 7번째 개인전... 6월 17일~23일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서



원학 스님은 40여년 남종화의 맥을 이은 문인화로 수행의 방편을 삼아왔다. 이번 전시에서 산수화 사군자 서예 등 총 72점을 전시한다.

“그림 작업은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심성을 닦고 자 노력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향한 화두와 같다”라고 말하는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이 7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삼이당(三耳堂) 원학 스님 서화전’이 6월 17일~23일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전시실에서 열린다. 40여년 남종화의 맥을 이은 문인화로 수행의 방편을 삼아온 원학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산수화 사군자 서예 등 총 72점을 전시한다.

2009년 이후 6년만에 전시를 여는 스님은 그동안 작업한 그림들을 모아, 봉은사 다래현에서 겨우내 붓을 들고 정성을 쏟아부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한다. 스님은 “열심히 다듬고 했지만 시간에 쫓기어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하지만 나의 온 정성을 쏟아 부어 완성한 작품임에 분명하다. 자연의 아름다운 정경들을 내 심성의 깊이에서 필묵을 통해 표현해 내고자 노력하다보면 어느새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듯 몰입이 된다. 또한 작업 내내 남종화의 사의적(寫意的) 직관력을 잃지 않으려고 초지일관 기본정신에 충신했다”며 그간의 작업 과정을 설명했다.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남종화는 선비의 풍류 정신이 가미된 그림으로 실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는 북종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작가가 마음속에 담아 둔 풍경을 어느 순간 흥이 돌아 붓 가는 대로 그려내는 남종화는 사의적 직관력을 중요시 한다. 이런 기본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초지일관 노력했다고 말하는 스님은 그간의 작업 과정이 수행과 같다고 강조한다.

“남종선과 상통하는 남종화는 사람의 심성에 노닐 수 있는 직관력을 가져야 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렇게 붓 가는 대로 그리다 보면 아름다운 형태가 나와요. 이는 직관력에 의한 마음 수련인 간화선의 수행과정과도 다르지 않죠. 의심을 한곳에 두고 수행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는 과정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직관력에 의한 느낌을 붓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남종화의 작업과 수행의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스님은 “일상에서 문방사우를 가까이함으로써 마치 수행자가 화두를 들고 일념에 몰두하듯 묵향에 젖어 산하를 그리며 ‘자연과 내가 합일’ 되는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6년만에 여는 전시로 72점 공개
남종화 기본정신에 충실한 작품
겨우내 봉은사 다래현서 작업 매진

스님은 20대부터 붓을 들고 스승을 찾아 공부한 지 40여 년이 넘었다고. 언제나 서예의 기본과 삶의 철학을 일깨워 주 청남 오제봉, 사군자를 가르쳐 준 묵산 나지강, 그림의 기초를 철저히 닦는 것이 남종화의 근본이 되고 문인의 선비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 일깨워준 우계 오우선 선생 등이 모두 스님의 스승이다.

하지만 스님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남종 문인화의 맥이 끊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남종화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남종화의 문인정신을 지켜 나가는 일은 더욱 어렵고 험난한 일이며 고독하지 않을



산심수원 도향만춘(山沈水遠 挑香滿春) ‘산 깊고 물 깊어 복숭아꽃 향기 봄빛 가득하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 없다. 그러나 누가 무엇이라 하든 나는 언제나 무소의 뿔처럼 부뽕부뽕 걸어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순수한 정경들을 마음속에 담아내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수행과 문인화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여 반드시 살아 숨쉬는 남종화 전통을 지켜 갈 것”이라며 의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원학 스님은 첫엄불 독송집 금강경 독송

CD도 출시했다.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약찬계 등으로 구성된 이 음반은 불자들의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다. 봉은사는 “지난 3월부터 금강경 기도를 진행중인 봉은사 신도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자기 점심을 하고 기도정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부처님의 설법모임 화폭에 담아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 ‘청룡사 괘불’ 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11월 29일까지 테마전 ‘청룡사 괘불’을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연다.

청룡사 괘불(보물 제1257호, 1658년)은 17세기 조선이 성대한 불교의식을 거행하면서 조성한 야외 의식용 괘불이다. 당시 불교의식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죽은 많은 영혼들을 위무하기 위해 법당 내부에서 외부 공간으로 이동해 괘불을 걸고 죽은 이들을 천도하기 위한 대승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식이 거행되고 석가모니와 영취산 설법이 그려진 괘불이 법당 밖에 걸리면 현세의 공간은 부처님이 머무는 정토로 바뀐다.

법회에 모인 많은 청중 중에서 부처님의 앞쪽에 가사와 장삼을 입고 머리를 깎은 인물이 뒤돌아 앉아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이다. 사리불은 설법을 듣는 청문자인데 이 도상은 명대(明代) ‘법화경변상도’에 이어 조선전기 <법화경변상도>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것으로 괘불에서는 ‘청룡사 괘불’ 등 3점에만 등장하는 보기 드문 예다.

1658년 괘불을 조성한 곳은 인평대군(1622~



박관 등이 제작한 청룡사 괘불(보물 제1257호, 1658년 제작)

1658)의 원당(願堂)인 안성 청룡사였다. 주상전화와 왕대비전화, 왕비전화, 세자저하의 안녕을 받들어 모신다는 축원문과 성주 김홍석이 괘불 조성을 위해 향대를 시주하였다는 내용이 화기에 기록되어 있다. (02)2077-9000

정혜숙 기자

난원 정향자 사경 특별초대전

6월 28일까지 송광사성보박물관에서

난원 정향자 씨의 사경 특별초대전이 6월 28일까지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지난 10년간 작업한 3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불정심다라니경’은 고려시대 감지금니의 맥을 잇는 동시에 문화재보존의 역할에 기여하고자 했다. 작가는 “‘불정심다라니경’을 다시 한번 역사의 장으로 끌어내어,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로 중생구제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또한 ‘관세음보살32응신도’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을 화적으로 표현했다.

늦깎이로 호남대 서예학과에 입학하면서 사경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서간문을 쓰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 자연스럽게 서예를 접하게 되었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논문을 작성하던 중 현장 스님께서 사경을 권해 ‘사경의 정신성’에 대한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다”며 사경을 접한 계기를 설명해 주었다. 이후 작가는 실기의 중요성을 알고 김경호 작가를 찾아가 금니 사경에 대해 공부했다.



정향자의 사경작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전법을 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다는 작가는 “늘 마음을 정갈히 하고 청정한 재료를 사용해 작업했다. 이번 전시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062)453-3581

정혜숙 기자

화엄사성보박물관 상설전시

화엄사의 성보박물관이 상설 전시를 개최한다. 화엄사주지 영관은 ‘화엄 세상에 놀다!’라는 주제로 6월 30일까지 서탑 출토유물, 동탑 출토유물, 벽암 각성 스님 가사, 서산대사 가사, 화엄석경 등을 전시한다.

보물 제1040호 화엄석경은 통일신라에 조성된 두께 2.7~6.4cm 크기로 13,000여 점이 전시되며, 보물 1348호 서오층석탑에서 출토된 불상상, 화문함, 뒤꽂이, 수저, 사리병, 수정, 청자양이병, 청자양이병 내 구슬, 령, 소발, 광배편, 탑다라니, 필사다라니 등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중과 만난다. 특히 1594~1604년 사이 제작이 추정되는 서산대사의 가사와 벽암대사의 가사(1626년 제작)도 전시된다.

이외에도 고려시대 범종, 청자삼강국화문잔과 조선시대 선조대왕가사 서산대사발우 및 푸경, 복장낭 등이 전시된다.

또한 동오층석탑에서 나온 유물 일체와 호남도 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적, 전라도구례현지리산화엄사각황전불량축원록, 전라좌도구례현지리산화엄사대웅전불량축원록, 선조대왕어필 목판, 호계첩 판 등이 공개된다. (061)783-761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연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청정지역 거제멸치

삼성각 건립을 위하여 스님께서 직접 손질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하므로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당일 즉석 건조하여 신선도 유지**
- 직거래 유통으로 가격이 저렴**
- 청어 멸치는 거제 가조도(섬)에서만 잡힘(청정지역)**

※ 불자님과 사찰스님께서 필요하신 신도님이 함께 구입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10박스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멸치에는 일반멸치와 청어멸치가 있음

※ 주의 : 가격은 시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멸치의 크기도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금룡정사 대정 스님

신선초 산삼 전문점 모집

산양삼 장뇌삼이 아닌 천연산삼 순수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실분을 모집합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선착순 세분만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아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H.P 010-5633-7010